



보도시점 2025. 12. 15.(월) 배포즉시 배포 2025. 12. 15.(월)

K-지식재산 외교, 카타르 진출로 중동 협력 지평 넓힌다!

-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
- 民官 전문가 3명 파견,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사업 수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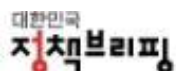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처의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되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감유림 (042-481-5936)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은 12월 14일(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Mohammed bin Hassan Al Malki)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을 만나 고위급 회담을 갖고, '카타르 국가 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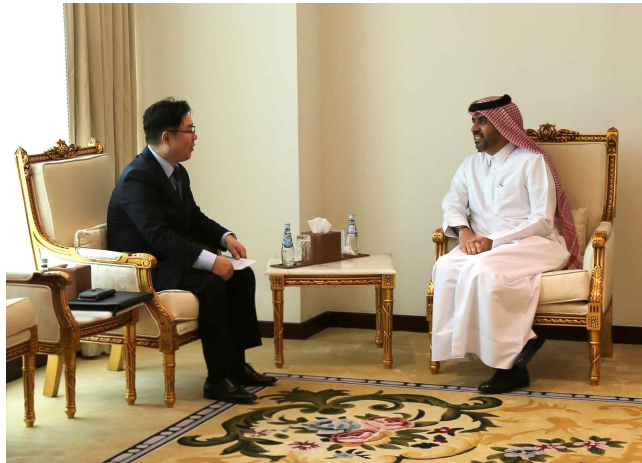


사진 1 :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왼쪽)과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Mohammed bin Hassan Al Malki) 통상산업부 차관(오른쪽)이 고위급 회담에서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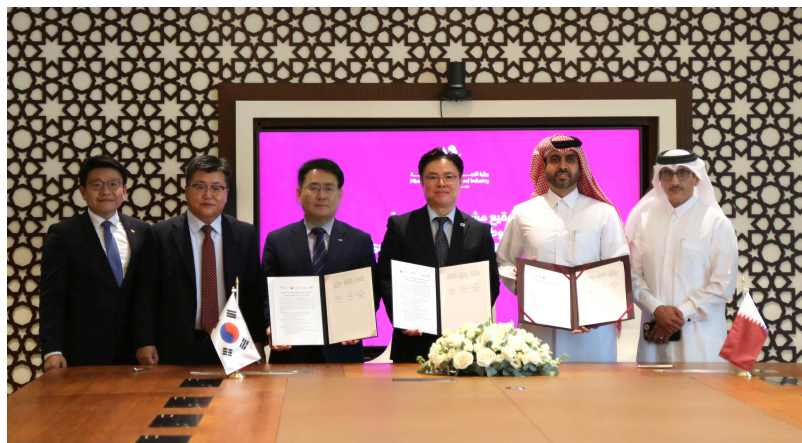


사진 2 :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왼쪽 4번째)이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Mohammed bin Hassan Al Malki) 통상산업부 차관(왼쪽 5번째) 및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왼쪽 3번째)과 '카타르 국가 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물정보 : 왼쪽부터 이승관 지식재산처 국제협력과장, 윤현수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Mohammed bin Hassan Al Malki)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 압둘바시탈리브 알 아지 (Abdulbasit Talib Al-Ajji) 카타르 통상산업부 지식재산권 보호국장